

'간편대용식' 식품업계 속속 진출

롯데제과·동원F&B·오리온 등 CMR시장 진출 선언... 핫시리얼·밀스 드링크 등 제품 내놓아

대세가 된 가장간편식(HMR·Home Meal Replacement) 트렌드에 더해 간편하게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간편대용식(CMR·Convenient Meal Replacement)도 새로운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다.

식품업계는 앞으로 이 같은 CMR이 성장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보고 속속 이 시장에 진출하는 모양새다.

2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와 동원F&B, 오리온 등이 최근 CMR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롯데제과는 펠시코사의 오토 전문 브랜드 '웨이커'와 손잡고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핫시리얼(hot cereal)' 제품을 선보였다. 차가운 우유에 타서 먹는 핫시리얼과는 달리 따뜻한 우유나 두유, 물에 데워서 먹는 타입의 제품이다.

핫시리얼은 시리얼이 보편화된 유럽이나 미국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유럽은 지난 6년간 핫시리얼



대세가 된 가장간편식 트렌드에 더해 간편하게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간편대용식도 새로운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장의 성장세가 8.8%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같은 기간 시리얼 전체 매출이 하락했지만 웨이커 핫시리얼은 연평균 2.4%의 성장세를 기록했다는 게 롯데제과의 설명이다.

롯데제과는 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리얼 시장에 진출해 올해 1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동원F&B도 유가공 브랜드 '텐마크'를 내세워 CMR 제품을 선보였다. 액

상형 간편식(RTD·Ready To Drink)인 '밀스 드링크'로 간편식 전문 스타트업 인테이크와 협업해 내놓은 제품이다.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비타민 8종, 미네랄 3종이 한 병에 들어 있어 하루 한 끼의 영양소를 대체하도록 했다.

2015년 물에 타먹는 분말형 대용식인 '밀스'를 선보인 스타트업인 인테이크와 협력해 국내 최초의 액상형 간편식 형태의 제품을 내놨다.

오리온도 CMR 사업에 뛰어들었다. 2016년 9월 농협과 합작법인인 '오리온농협'을 설립해 농협이 국산 농산물을 공급하고 오리온이 판매하는 방식으로 CMR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밀양시 북북면 제대농공단지에 9900㎡(3000평)규모의 공장을 건설했으며 다음달에 제품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수호 기자



이스타항공-연탄은행, 독거노인 제주도 항공편 지원

이스타항공이 전주연탄은행과 함께 독거노인과 봉사자들에게 제주도 나들이 항공편을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이날 오전 군산공항에서 '이스타항공과 함께하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주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 앞서 이스타항공 승무원들과 군산지점 운송직원들은 이들의 탑승수속을 돕고 기념사진 촬영도 진행했다.

이스타항공은 3년 연속 전주 지역 독거노인 제주도 항공편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 동안 독거노인들의 제주 나들이 여행은 오전편이 없어 근거리의 군산공항 대신 타 지역에 위치한 청주공항으로 이동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따랐다.

하지만 지난 3월 군산~제주 노선의 오전편 증편으로 올해부터는 근거리의 군산공항을 이용해 주제 여행을 할 수 있게 됐다.

비행을 함께한 윤현진 사무장은 "어르신들이 비행기를 타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번 호도비행에 책임 사 무장으로서 함께 할 수 있어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와 함께 기부 협약을 체결하고 승무원 달력 수익금과 임직원 성금 기부를 통해 착한권리, 착한일터에 가입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최수호 기자



'행복두드림마켓' Kick-off 행사

우정성, 위촉장 수여·기업 마케팅 운영사례 발표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철)은 2일 전주 라투레에서 김성철 청장과 행복두드림마켓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행복두드림마켓' Kick-off 행사를 했다.

이 행사는 금융기술 혁신 가속화로 금융 패러다임이 급변 하는 시대에 발맞춰 우체국보험의 안정적 성장과 유지를 위해 새로운 판매 채널을 개척하자는 취지로 전북 우체국 마케팅 인재를 중심으로 출범했다.

또한 마케터 팀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 기업마케팅 운영사례 발표 및 우수사례 정보공유 등 순서

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행복두드림 마케터 출법을 축하하고 향후 기업고객 단계가입 전용상품의 단계적 확대 차원에서 열렸다.

김성철 청장은 "우체국 보험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영역 관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모험심이 중요하다."며, "행복두드림마켓이 끼와 열정을 발휘해 고객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든든한 우체국 착한 보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수호 기자



완주 고산농협, 사랑의 밑반찬 나눔

완주 고산농협은 최근 사랑의 밑반찬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산농협 직원과 고향주부모임(회장 한정희) 회원들과 함께 참여했다.

또한 농축산물을 재료로 직접 요리한 배추김치, 된육 메추리알 장조림, 돌자반 등을 마련하여 관내 다문화가정 30가정에 직접 전달하며 작은 나

눔을 함께 했다. 국영석 고산농협 조합장은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함께 행복해 질 수 있는 따뜻한 나눔의 행사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나눔 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할 것이며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했다. /최수호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文 대통령 "미·중 무역갈등, 우리 경제 부정적 영향 미칠수도"

"한·미 FTA 개정협상 경험 토대로 각종 무역협상 대처"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보호무역주의의 추세와 미·중 무역갈등은 세계 6위 수출국이며 대외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 두발언에서 이렇게 말한 뒤, "하지만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입증된 우리의 FTA 협상 경험과 능력을 토대로 보다 높은 수준의 세계경제 개방을 지향하면서 각종 무역협상에 능동적이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성과와 관련해 "지난 주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FTA 개정협상을 빠르게 마무리함으로써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동차 수출과 농업을 지켜내고 철강 관세부과 면제 등을 이끌어내어 양국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고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갈등 요인을 정리했다는 점에서도 아주 잘한 일"이라며 "정부는 이번 FTA 개정협상이 한·미간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대책들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수호 기자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